

특강 2

##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나태주(시인·공주문화원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우리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

##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나 태주(시인, 공주문화원장)

### 잘 사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삶일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생명 가운데도 고등생물인 인간은 삶 가운데도 좋은 삶을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들 인간의 삶을 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삶에는 세 단계의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좋은 삶입니다. 복이 있는 삶이라고도 하고 풍요한 삶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위해서 돈과 물질과 직장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양육되고 교육받으면서 또 학교 다니며 공부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이쯤에 있다 하겠습니다. 취업이나 사업, 출세라든지 치부,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대개 이 단계의 삶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입니다.

### 행복한 삶

그 다음은 행복한 삶입니다. 앞의 삶이 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때 이 단계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판단됩니다.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행복지수입니다.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재화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있다 해도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 되지 않으면 만사가 허사라는 것이지요. 자기 만족도가 자장 중요하겠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 나태주, 「행복」 전문

이것은 제가 쓴 「행복」이란 짧은 시입니다. 최소한의 우리 행복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집’과 ‘사람’과 ‘노래’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나름대로의 각성에서 쓴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려면 문질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은 의식주나 물질의 최소 단위로서의 집이고, 사람은 가족과 이웃 가운데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이며 노래는 문화적 의미로서의 노래입니다.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행복의 항목들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살다보니까 알고 나이 들었으니까 알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오래 해본 결과로서의 한 보고서 같은 것입니다.实로 모든 생명체의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또 어디에 있는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인가? 누군가가 행복을 찾아 지구 끝까지 떠돈다 해도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톨스토이 선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집안에 있었고, 내 안에 있었고, 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이미 있던 것들 속에 또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성의 소중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행복이란 가까운 곳에 있고, 작은 것 속에 있고, 오래된 것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오래된 것, 가까운 것, 벼려진 것, 반복되는 것들을 아끼고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을 때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마땅히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입니다.

## 아름다운 삶

그 다음, 가장 좋은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가진 가치인 진선미성(眞善美聖) 가운데 가장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듯이 미의 가치는 보는 사람의 상황(개인, 시대, 취향,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그 척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치입니다. 변화무쌍한 가치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미의 가치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더불어 있는 사람, 즉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아름답다 우겨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교차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는 건 내 눈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설정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미의 가치란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쳐진 나의 삶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어야만 나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좋게 보이는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은 명성이나 인기도 그렇고 선행이나 윤리, 도덕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제대로 짹트고 성장하고 또 완성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전문

이것은 제가 쓴 또 다른 시 「풀꽃」이란 작품입니다. 풀꽃은 눈 잘 뜨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밟을 수도 있고 꺾을 수 있는 흔한 것들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그만 발견이요 희열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희망이요 가슴 따뜻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직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생각과 느낌이 마지막 구절 ‘너도 그렇다’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히 폭발력을 갖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풀꽃’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 그렇다’고 말할 때는 심상치 않은 것이 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한낱 풀꽃만을 노래했지만 그 의미는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보다 많은 대상으로 번져나갑니다.

나아가 그것은 우주만물로까지 확대되어 나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사물들로 번져나갑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삶도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박수를 칠 때 가능한 것이란 것을 우리는 이쯤에서 알게 됩니다.

## 소망의 이중구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책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소망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곁의 구조는 내가 인식하는 나의 소망, 즉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소망입니다. 주로 이 소망은 현실적인 소망이 많습니다. 취직, 결혼, 자녀출산, 육아, 교육, 주택구입, 승진과 같은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소망을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소망, 인식의 소망 그 안쪽에 깊숙이 숨어있는 또 다른 소망입니다. 나 자신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소망이고 숨어있는 꿈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그것입니다. 실은 이 소망이 보다 중요한 소망이고 뿐리 깊은 소망이고 힘이 강한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애당초 나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고 내가 살고 싶었던 나의 삶 속에 그 원본이 들어 있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며 내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나는 생각해봅니다. 어떤 삶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이고 좋은 삶인가? 첫째는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비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타인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거나 칭찬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삶은 더없이 좋은 삶, 최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그 다음으로는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까닭이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밖의 그 무엇,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타인을 원망했고 주변 환경을 탓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었습니다. 원인이 내 밖에 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시각과 사고 패턴을 바꾸지 않으니 세상이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안 뒤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흐린 세상이 밝아지고 답답하고 슬픈 세상이 시원한 세상 즐거운 세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007년, 6개월에 걸친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랐습니다. 사람도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고, 이만큼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스런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하나의 발견 수준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결핍의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 근심과 걱정을 버려라

얼마 전 저는 또 놀라운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나 걱정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당초는 사소한 생각이거나 불만이었는데 그걸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살았더니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더러워 위장병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온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마이너 감정이긴 하지만 슬픔이나 절망에 비해 그 대상이 불분명할 때가 많고 그런 만큼 해결방안 쉽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걱정에 비하여 근심은 더욱 실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소나비가 아니고 이슬비 같은 비이고 차라리 는개와 같은 비라 하겠습니다. ‘이슬비에 옷 젓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은 이슬비처럼 자신도 모르게 인간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신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마땅히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을 고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글자 하나만 바꾸기를 권유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 나태주,  
『선물』 전문

이쯤에서 우리는 또 100여 년 전 미국 사람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충고에  
귀기울여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수레와 혀간 밑으로 피할 때 그대는 구름 밑으로 피하라. 밥  
벌이를 그대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으라.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중에서